

지역 매 아리

김제여성새일센터

SW코딩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김제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는 지난 18일 김제새일센터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수료생과 지도강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직업교육훈련 SW코딩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을 개최했다. SW코딩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구인 수요가 높은 학교, 지역아동센터에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학교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SW기초교육, 기본 코딩의 이해, 언플러그드, 스크래치, 아두이노, 로보틱스 교육 실무 등을 중심으로 총 20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기간 중 SW코딩교육전문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특히 교육생 중 4명은 일자리협력을 통해 취업에 성공해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신미란 센터장은 "직업교육훈련 수료생들이 방과후·자유학기제·평생교육 분야의 SW코딩강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로교육, 창업교육 등의 각종 취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산면 복지기동대

소규모 집수리 봉사활동 추진

김제시 황산면 복지기동대(대장 윤충근)는 1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복지기동대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회의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6월은 바쁜 영농철로 봉사자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황산면복지기동대는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1~2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은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7세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수도보수, LED전등교체, 방충망 보수 등의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온몸이 땀에 젖은 이진석(50세)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잠깐의 시간을 내어 땀 흘려 얻는 보람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면서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이날도 봉사자들과 함께 하면서 "생명을 제쳐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복지기동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완주군, 매출 8800만원 이하... 최대 20만원까지 1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완주군이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완주군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유통업소

와 도박 및 성인용품점 등을 제외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신청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사업체당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이하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금은 3억5000만원 정도이며, 이는 약 1530여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오는 11월 29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18년도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재열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는 19일 벽골제 내 한옥정터 특설무대에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지평선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김제시, 농악 공연·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진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9일 김제지평선축제의 D-100일을 맞아 벽골제 내 한옥정터 특설무대에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운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정회은 지평선축제제전위원장, 임종기 전통가양주연구회장, 도의원, 시의원, 축제제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공식 건배주 담그기, 성공기원 퍼포먼스, 전통주 시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집마다 술을 빚어 제사도 지내고 손님에게 접대하던 특유의 술 문화가 있었다. 김제시는 유일하게 전통농경문화를 주제로 글로벌 육성축제까지 선정된 지평선축제의 품격을 알리고, 우리

문화와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햅쌀로 직접 빚은 전통주를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 리셉션 공식 건배주로 사용하여 손님에게 대접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에서 직접 생산된 우리 쌀로 오늘 정성스럽게 건배주를 담았다. 한결같은 오늘이 이 마음으로 남은 100일 동안 공무원, 시민의 협조와 온 관심을 모아 지평선축제를 준비하겠다. 그리하여 올해 처음으로 연장된 10일의 기간 동안 김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over the horizon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일~21일까지

완주군이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봉동 행정복지센터와 삼례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무원과 신고의무자(의료인, 시설통사자,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해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삼례문화예술촌, 신성심조형작가 초대전

완주군, 주제 '봄날의 꿈'... 9월말까지 전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을 위탁 운영 중인 아트네트웍스(주)가 조형작가 신성심 초대전을 열면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완주군에서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 디지털아트관에서는 '봄날의 꿈'이란 주제로 초대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신 작가는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2003년 호주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를 졸업하고, 2004년 Sydney Gift Fair Show를 시작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6년 홍콩아트페어, 부산아트페어, 2018년에는 개인전(삼정동 JY아트갤러리) 등 다수의 전시를 열었다. 작가는 예술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가치

라고 강조한다. 작품설명에 통해 작가는 "나무는 자라 꽃을 피우고, 완숙기인 가을이 되면 충분히 익은 열매는 떨어진다"며 "인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숙해지고 늙어가며 다시 자연으로 흡이 되어 돌아간다"고 말했다. 구름, 바람, 물, 흙, 나무, 새, 꽃 등 자연의 요소를 또한 우리네 삶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 이번 전시전은 자연의 요소들인 구름, 나무, 꽃, 새 등을 모티브로, 작가의 사상을 담아 '봄날의 꿈' 이야기를 풀어간다. 심가영, 심가의 아트네트웍스(주) 공동대표는 "새로운 것을 친근하게, 친근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신성심 작가를 초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의 가치를 느끼며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만경읍사무소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19일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만경읍-길보른사회복지관, 기부물품 전달협약 체결

김제시 만경읍사무소(읍장 최병인)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은 19일 만경읍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만경읍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 및 사레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김제지역 기초푸드뱅크를 통한 기부물품 전달과 함께 민·관 협력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만경읍과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비정기적으로 기부되는 푸드뱅크 물품을 관내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상호 의의 및 자원보유 등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역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가구에게 즉각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